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삽화에 표현된 한국고대신화*

최 유 경**

1. 서론
2. 《동아일보》 창간호 제호삽화와 고구려신화
3. 《동아일보》 삽화와 고구려
4. 《동아일보》 1주년 기념 삽화와 동이(東夷)신화
5. 《동아일보》와 단군관련기사
6. 결론

1. 서론

일사늑약과 한일병탄으로 이어지는 국권찬탈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민영환처럼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에 절망하여, “자유 독립을 회복”¹⁾을 당부하며 분연히 죽음을 택하는 이도 있지만, 1910년대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서구의 근대문명수용을 통한 개화자강운동을 전개하는 문명개화론자(文明開化論者)와 강경무장항쟁으로 양분화되었다. 후자의 비타협 강경노선투쟁론자들은 한국의 역사, 사상, 풍속 등의 연구를 통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자아성찰과 이를 통한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지닌 혈연과 운명, 역사공동체임을 부각시켜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절망의 끈 속에 빠져있는 국민을 하나로 묶으려 하였다. 이는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등과 같은 역사학자들의 고대사, 고대신화연구, 그중에서도 고조선과 단군, 그리고 드

* 이 논문은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기초연구지원인문인문사회)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327-2011-1-G00025).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 민영환, 『민충정공 유고』, 이민수 역, 一潮閣, 2000. p.290.

넓은 북방을 지배했던 고구려 등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신채호, 최남선 등에 의한 새로운 역사의식은 개화기를 통해 뛰어난 복제 기능을 갖춘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인쇄매체의 탄생과 이것을 소비하는 다수의 대중의 생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나 시각적 이미지 제작에 인색했던 한국문화 속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 다수에게 유포되는 인쇄매체의 등장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신뢰의 심화와 체험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개화기의 인쇄미술 속에 등장하는 신문물의 이미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시각적 근대문명과 문화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경험시켰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 인쇄매체인 신문은 서적이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역사, 신화, 그리고 신화 속 인물을 '이미지'라는 구체적 실체를 통해 재구성하는데 그야말로 독보적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근대기, 고구려고분벽화를 비롯한 고대유물, 유적은 역사를 증명하는 실증적 자료이기도 하지만 신화적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신화를 역사로 육화(肉化)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신화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1920년 4월 1일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3월 5일 창간)는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에는 종래 신문에서 볼 수 없었던 신문 1면에 신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화적 이미지를 담은 삽화를 전면에 장식하였다. 이 창간기념삽화는 한국최초의 서양화가 춘곡 고희동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 속의 용 같은 것”²⁾을 모아 제작하였다는 고희동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 고분 속의 이미지가 차용되었다. 이러한 신화적 전통적 이미지의 시각화에 대한 시도는 신년기념호, 창간 기념호, 단군영정계재 등으로 확산되었다.

한국근대미술에서 인쇄매체 속의 삽화연구는 주로 소설삽화 및 광고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연구되고 있고, 더군다나 인쇄매체를 통한 신화적 이미지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일보》의 창간, 신년기념을 위한 삽화를 통해 《동아일보》가 민족일간지로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질곡의 한국근대사와 함께 한 《동아일보》의 삽화연구는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동아일보》 창간호 제호삽화와 고구려신화

2) ‘민족과 함께 반세기 – 동아일보 창간 4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1965년 4월 1일 동아방송.

1910년, 강압적인 한일병탄이후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꾼 일제는 현병경찰제를 통해 경제수탈, 폭력적 강제지배, 민족독립운동 등 무력 탄압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폭력적 지배에 항거하여 발발한 3.1운동이 무려 3개월간이나 지속되자, 흥 흥해진 조선의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세가와(長谷川好道)의 뒤를 이어 제3대 조선 총독으로 제1차 사이온지(西園寺)내각에서 해군대신을 지낸 해군장교출신, 사이토 마코토(斎藤実, 1858-1936, 1919-27년 재임)가 임명된다.

부임과 동시에 사이토는 현병력을 동원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1852-1919)의 잔혹한 현법경찰제도 및 관료들의 제복착용을 폐지하고, 대신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총독부 관제개혁을 단행하여 종래의 무단주의를 철회”³⁾한다고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조선지배시정안으로 “내선인관리(內鮮人官吏)차별대우의 철폐, 법령의 간략, 사무의 정리간첩(整理簡捷), 지방제도의 개정, 재래문화 및 관습의 존중 및 채택, 언론집회 및 출판의 자유,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경찰기관의 정비, 의료의 생기관의 확장, 교통운수기관의 확장, 민심의 수무(綏撫)선도, 인재등용의 문호개방, 내선인의 융화”⁴⁾를 주 항목으로 삼았다.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조선인의 정치참여, 언론개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정책변화는 표면적으로 조선인들의 정치, 사회, 문화 활동 및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회유책에 의거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이토의 조선총독부임은 최초의 평민출신수상, 하라 다카시(原敬, 1918-1921 재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이다. 조선에서 무단정치를 행한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언론, 노동탄압에 쌀소동까지 발발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자 그 후임으로 18대 수상으로 임명된 하라는 대중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당정치(政友會)를 출범시키는 등 정치개혁을 단행한 수상이다. 사이토의 조선총독임명은 무단정치를 단행한 데라우치에 이어 또 다시 군 출신인 사이토가 조선총독으로 임명된다면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이고, 조선의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 등을 이유로 문관출신의 총독을 임명하라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는 하라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하라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사이토의 조선의 제도개혁은 국방, 교육증진, 산업발달, 교통 기관정비 등을 4대 정책⁵⁾으로 내세운 하라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

3) 金谷栄雄編, 『黎明之朝鮮』, 東亞義會, 1924, p.22.

4) 위의 책, pp.25-26.

5) 1918年 12月 25日, 第41回施政方向演説, 原敬全集刊行會編 『原敬全集』 下, 東京, 1929, p.256.

데, 이는 1919년 3.1운동을 “조선인이 의외의 오해”에서 빚어진 소요로 규정하며 조선 시정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하라의 의회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⁶⁾.

데라우치의 무단정치는 정치, 경제, 사회만이 아니라, 여론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신문, 교과서 및 각종 출판물에 대한 검열은 물론 일본에서 출간된 모든 출판물, 하물며 총독부의 기관지까지도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1907년 7월 신문지법(新聞紙法)에 의해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어지럽히는 신문에 대한 발행금지와 압수처분, 1908년 9월, 교과용도서검정규정(教科用圖書檢定規程(學部령 제16호, 1908년 8월 28일)에 의해 통감부의 통치행위를 비방하거나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발간 등을 금지시켰다⁷⁾. 모든 출판물은 허가를 거쳐야 했고,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제, 불온한 내용의 기사는 발매금지, 압수, 폐간은 물론 통신이나 전보도 경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언론통제, 탄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독부기관지, 『京城日報(일본어)』, 『毎日新報』(한국어), 『The Seoul Press』(영어) 만이 남게 되었다.⁸⁾

이렇게 한일병탄이후 결사집회, 신체자유의 제한 등 모든 언론의 차단으로 언로의 출구가 막혀버린 당시 상황에서 사이토는 공안질서유지에 방해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간지발행의 허가한다. 이로 인해 표면적으로나마 조선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환경은 넓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이 발행허가를 받게 된다. 물론, 일제의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발행의 허용은 합법적 언론을 통한 일제에 유리한 여론조성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언로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강경한 독립투쟁에 의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문화통치전략의 일환으로 민족진영인사들은 사이토의 민족주의세력의 타협화를 유도하는 ‘문화운동’, ‘자치운동’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 중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유화정책의 허구성을 비난한다.

-
- 6) 1919年1月21日, 第42議會施政方針(興亞文化協會編, 『歷代總理大臣施政方針』, 興亞文化協會, 1939, pp.175-176).
- 7) 남궁원, 「한일합병 전후 교과서 검정을 통한 한문과 교과서 개발 억제 실태 연구」 『漢字漢文教育』, 2006, p.224.
- 8) 이연, 「日帝下 사이토마코토(齋藤實)의 언론정책과 민간지의 창간배경」 『한국언론학회』, 2001, p.136. 이연은 데라우치의 언론탄압정책은 조선주둔군 현병대사령관겸 조선총독부 경무총장인 아카이시 겐지로(明石元二郎)와 당시 수상이었던 가즈라(桂太郎) 내각을 지지하는 『國民日報』 사상인 대표적 보수논객, 도쿠토미 소호(德富蘆峰)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데라우치의 부탁으로 『京城日報』의 경영을 맡은 소호는 『國民日報』의 제작진으로 『京城日報』을 운영함으로 소호의 의도대로 여론조성이 가능하였다고 지적한다(이연, p.138).

日本이 憲兵政治 警察政治를 斷行하여우리 民族이 寸步의 行動도 任意로 못하고, 言論·出版·結社·集會의 一切 自由가 없어, 苦痛과 憤恨이 있으면 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오, 內政獨立이나 參政權이나 自治를 運動하는 者 -누구이냐?...強盜的 侵略主義의 招牌인 「帝國」이란 名稱이 存在한 以上에는, 그 附屬下에 있는 朝鮮人民이 어찌 區區 한 自治의 虛名을 維持하겠느냐?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최초의 민간일간지의 출현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920년이라는 식민지적 통치상황에서 민족운동가, 지식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민족지가 되어 본격화된 민족운동의 중심기관이 되기를 염원하였다. 하지만 민족진영, 사회주의진영 등 다양한 인적구성의 참여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했고, 《동아일보》는 창간직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분화로 인한 사상적 대립, 1922년 2월초의 '김윤식사회장 반대사건'을 계기로 1924년 동아일보기자들의 경영진 퇴진요구, 1924년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의한 불매운동 등 창간직후부터 내부풍파를 겪어야 했다¹⁰⁾. 이는 역으로 박용규의 지적처럼 "신문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민족운동의 수단"¹¹⁾, 즉 언론 정부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일보》의 엄청난 포부는 창간1면을 장식한 雪山, 장덕수(張德秀)의 '主旨를 宣明하노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동아일보》가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문화주의를 제창'함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창간정신은 그대로 창간기념삽화에도 반영되었다. 《동아일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시각적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창간호기념삽화를 고희동은 고구려벽화에서 차용하여 신화적 이미지를 재현하였다. 종래의 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시도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년기념삽화, 창간기념삽화 등으로 이어졌는데, 《동아일보》의 기념삽화를 통해 《동아일보》가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고찰하여 보도록 하자.

3. 《동아일보》 삽화와 고구려

1920년 4월1일에 창간된 《동아일보》에는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9) 신채호, 「朝鮮革命宣言(1923)」「丹齋申采浩全集」下, 蠡雪出版社, 1987, pp.35-37.

10) 장신,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2006, pp.246-256.

11) 박용규,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 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09.12, p.228.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문전체를 장식하는 장식 및 신문제호를 장식하는 삽화의 등장이다. 특히 그 이미지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한국적 이미지, 그것도 고대벽화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차용하여 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일보》의 의욕을 읽어낼 수 있다. 1920년 4월 1일, 창간호의 첫장을 장식하는 1면 삽화, 민족운동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동아일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삽화를 제작한 것은 한국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에 의한 것이었다.

春谷 고희동은 깃털 같은 판모를 쓰고, 상반신을 노출한 남성이 양쪽에서 『동아일보』의 현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앞으로 허리끈이 묶여진 남성의 옷(裙)은 위로 날리고 있고, 두 다리는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묘사된 이

남성의 모습은 고구려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천(飛天)의 모습이다(그림1). 비천은 비파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연

꽃겹시를 들고 산화(散花)하는 모습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천인으로, 상반신은 반라이고 하반신은 하늘거리는 천의에 지탱하여 하늘을 날고 있다. 비천의 주위를 떠도는 연꽃은 정토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모습은 고구려고분벽화, 장천1호분과 안악1호분 등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 두 고분에는 20여 구의 비천이 등장한다. 비천은 고구려고분벽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는 불상의 광배, 범종 금속공예품 등에 사용되었는데, 한국의 비천의 모습은 중국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여성스런 가슴과 유연한 자태를 보여주는 고희동이 묘사한 비천은 후기고구려벽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그림4). 그 중에서도 7세기 경의 강서대묘의 현실(玄室)서북 쪽 천정의 고임에 묘사된 4구의 비천 중 오른쪽 고임의 두 번째로 묘사된 비천과의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그림2)¹³⁾. 강서대묘의 천정고임의 비천은 고희동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높은 판모에 반라 모습, 그리고 앞으로 허리끈을 묶은 천의 등 전체적인 윤곽선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기 있다¹⁴⁾.

12) 도학희, 「비천(飛天)의 도상적(圖像的) 고찰」 『美術教育論叢』, 2002, p.365.

13) 정수희, 「고구려고분벽화(高句麗古墳壁畫)의 천인상(天人像)에 관한 연구(研究)-비천상(飛天像)과 비선상(飛仙像)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2002, pp.33-34.



그림 1 고희동, 동아일보, 창간호 삽화부분

당시 고구려유물 유적조사는 1895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의 요동반도답사에서 처음 고구려고분이 발굴되면서 촉발되었던 것으로 직접 고희동이 벽화를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고희동이 참고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서대묘에 대한 조사는 1913년, 세키노 타다시(関野貞 1867-1935) 일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1906년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에 있던 오늘날 강서대묘, 중묘로 알려진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가 발견되자¹⁵⁾, 조선총독부는 강서대묘에 대한 조사를 동경제국대학교 교수, 세키노 다다시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세키노 일행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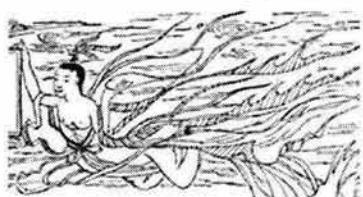


그림 2 동아일보 창간호 부분

벽화를 비롯한 조선의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1915년에서 193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책으로 출간한 것이 총 15권으로 구성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¹⁶⁾로 그 중 국내성 지방, 즉 집안 부근의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1915년에 발간된 제1권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⁷⁾.

이렇게 일제에 의하여 고구려발굴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희동은 꽃과 음악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비천의 도상을 차용하여 『동아일보』 창간축하 메시지를 전하였다. 비천이 축하 메세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아일보창간을 축하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유물 및 고구려고분벽화의 발굴 작업으로 고구려연구가 한창진행 중이던 1920년, 고희동은 최초의 일간신문의 발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발간축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고구려벽화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 한국의 민족적 정통성이 고구려에 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축하메세지를 전하는 비천을 통하여 『동아일보』 창간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14) 『동아일보』 창간삽화와 고구려벽화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졸고, 「고희동의 동아일보창간호삽화와 고구려벽화」(『비교문학』, 2012.9)에서 논술하였다.

15) 전호태, 『한국의 탐구30 고구려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84.

16) 『朝鮮古蹟圖譜』 1-7, 朝鮮總督府編, 朝鮮總督府, 1915-1920. 이 자료는 일본국회도서관이 소장한 근대라이브러리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7) 장군총·태왕릉·천추총(千秋塚) 같은 돌무지무덤(積石塚)과 삼실총(三室塚)·산련화총(散蓮花塚)·구갑총(龜甲塚) 같이 벽화(壁畫)가 있는 봉토분(封土墳)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장군총의 실측도, 태왕릉의 복원도와 삼실총 같은 횡혈식석실(橫穴式石室)의 약식(略式) 도면(圖面)을 소개하였고, 또 태왕릉·천추총의 글씨가 새겨진 벽돌(銘文 塼)과 장군총 같은 곳에서 나온 수기와 암기와 같은 유물도 고찰하였다. 도리이 류조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조선고적보도의 1913년 조사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오회분의 3호과 2, 4호를 조사하였다(『일본소재 고구려유물2』, 동북아역사재단, 2009,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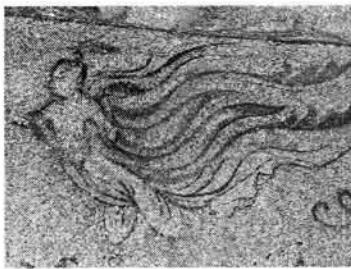


그림 3 강서대묘 천정(遇賢里大墓玄室北쪽 고임모서리(室持送其1西北隅)의 비천(飛天)의 부분



그림 4 1925년 1월1일자 동아일보1면 신년기념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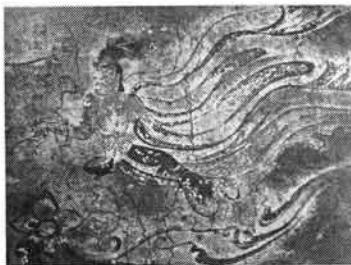


그림 5 강서대묘 천정(遇賢里大墓玄室北쪽 고임모서리(室持送其西北隅)의 비천(飛天)의 부분

이 같은 『동아일보』의 고구려벽화에 대한 관심은 일제의 고구려연구 및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역사학자들의 고구려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도리이류조(鳥居龍藏), 야기소자부로(八木奘三郎), 세키노타다시(関野貞) 등과 같은 일본의 인류학·고고학·미술사학의 개척한 관학자들은 고구려벽화를 비롯하여 한국고대고분연구를 실질적으로 발굴이라는 작업을 통해 본격화시켰다¹⁸⁾. 일본인학자들에 의한 고구려 및 고구려고분연구는 조사, 발굴이 청일, 러일전쟁 전후로 본격화되었다는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대륙진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주진출을 위해 만주, 몽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했던 일제의 고구려연

『동아일보』가 비천(飛天)을 축하의 의미로 사용한 것은 비단 창간호만이 아니다. 1925년, 1월1일자 『동아일보』 신년축하 1면 삽화에도 천의를 입고 허공을 나는 비천이 등장한다. 우아한 자태로 연꽃접시를 들고 산화(散花)하는 모습의 비천은 고희동이 참고한 강서대묘 천정고임의 첫 번째 비천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비천의 모습만이 아니라 비천주변의 운문(韻文),

그리고 산화(散花)되는 연꽃의 모습까지도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그림5), 동일한 자료를 참고하였을 가능성

이 농후하다.

이 같은 『동아일보』의 고구려벽화에 대한 관심은 일제의 고구려연구 및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역사학자들의 고구려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도리이류조(鳥居龍藏), 야기소자부로(八木奘三郎), 세키노타다시(関野貞) 등과 같은 일본의 인류학·고고학·미술사학의 개척한 관학자들은 고구려벽화를 비롯하여 한국고대고분연구를 실질적으로 발굴이라는 작업을 통해 본격화시켰다¹⁸⁾. 일본인학자들에 의한 고구려 및 고구려고분연구는 조사, 발굴이 청일, 러일전쟁 전후로 본격화되었다는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대륙진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주진출을 위해 만주, 몽고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했던 일제의 고구려연

18) 세키노가 처음으로 조선연구를 실시한 것은 1902년으로 1904년에 발표한 「한국건축조사 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東京帝國大學工科學術報告第6号)는 일본에서 한국의 유적조사에 대한 최초의 서적이다. 이처럼 한국유적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세키노는 1909년부터는 직접 한국에 건너와 고적유물, 유적, 낙랑, 고구려고분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 조선, 중국 등 폭넓은 범위에서 문화재 조사하였다.

구는 고대 이 지역을 지배했던 고구려를 일본의 역사로 편입함으로서 대륙진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고구려에 대한 일제의 관심은 1882년 집안을 방문한 일본육군참모본부의 사코 우 가게노부(酒匂影信)가 광개토왕비(広開土王碑)을 발견하고 그 탁본을 1883년 일본에 가지고 오면서 촉발된 것이다. 한편 고구려벽화조사는 앞서 언급한 1895년, 일본인 학자로는 처음으로 고구려 유적(봉황성)을 조사하게 된 도리이의 요동 반도답사에서 고구려고분벽화를 발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러일전쟁의 승리로 만주 및 한반도 소재 고구려 유적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자 도리이는 군경의 도움을 받아 1905년과 1909년에도 요동 일대를 답사하면서 집안의 장군총, 광개토왕릉비, 관구검기공비 등을 포함한 고구려 유적들을 조사하였으며, 1906년에서 1907년까지는 만주와 몽고 등 일본의 대륙진출에 보조를 맞추면서 일본주변국의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⁹⁾. 이에 대하여 최석영은 한국의 고고학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발굴조사였지만 한국의 고적조사는 일본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었으며 자신들의 원형으로서 사라진 과거를 재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²⁰⁾.

민족지를 표방한 『동아일보』의 창간호 및 신년기념삽화에 고구려벽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고대고분벽화의 등장은 종래의 일간지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도이다. 고희동의 고구려벽화차용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였다가보다는 고구려에 대한 연구가 신채호를 비롯한 한국의 민족학자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다는 사회적 배경이 동아일보사로 하여금 고구려벽화를 의식한 창간제호를 제작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이러한 『동아일보』의 시도는 창간호만이 아니라 1921년 창사1주년 기념삽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구려벽화만이 아니라 한국의 상고사 신화를 통한 민족적 정통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4. 『동아일보』 1주년 기념 삽화와 동이(東夷)신화

1921년 4월 1일자로 1주년을 맞이한 『동아일보』는 1주년 특집호를 마련하는데, 1면 제호삽화에 조선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활짝 편 꽃밭에 색동옷을 입은 아

19) 양시은, 「일제강점기 고구려 발해 유적조사와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010, p.158.

20) 최석영,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고구려 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4, p.486.

이가 서 있고, 그 양옆으로 봉황이 묘사되어 있다. 색동저고리는 전통적으로 생일, 특히 돌 때 입는 옷으로 이는 1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일보』가 이제 막 1살이 된 어린아이로 1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돌 복을 입은 이 삽화의 어린아이 손에는 활과 활궁이 들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아이 양옆에는 하늘을 날 듯 날개를 활짝 편 봉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이 아이가 들고 있는 활과 활궁의 의미, 그리고 어린아이 옆에 있는 봉황과의 관련성이다.

어린아이의 손에 활과 활궁이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동방의 큰 활을 쏘는 어진 민족‘이라고 불린 동이족의 궁시(弓矢)설화를 나타내고자 함으로 추정된다.



그림 6 동아일보, 1921년, 창간1주년 기념

예로부터 한국은 스스로를 만주지방을 지배했던 동이족(東夷族)의 후손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동이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에도 산발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동이를 우리민족과 관련된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민족과 관련된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보다 분명히 우리민족에 대한 통칭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실학자 중에서 동이 관련 인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한치윤(韓致淵)의 『해동역사(海東釋史)』이다. 그 외에도 이익(李漢) 『성호사설(星湖僊說)』,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이 있다²¹⁾.



근대기, 신채호, 정인보, 최남선 등은 동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보다 분명히 우리민족에 대한 통칭적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실학자 중에서 동이 관련 인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한치윤(韓致淵)의 『해동역사(海東釋史)』이다. 그 외에도 이익(李漢) 『성호사설(星湖僊說)』,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이 있다²¹⁾. 근대기, 신채호, 정인보,

그림 7 오희분4호묘 봉황타고 꾀리부는 선인 최남선 등은 동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하고 있지만 동이를 고조선 단군과 연결지어서 언급함으로서 조선민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동아일보』가 1921년 1주년 기념삽화로 사용한 것은 조선을 상징하는 동이족의 전통을 지닌 아이가 봉황의 비호를 받으며 탄생 1주년을 맞이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²⁾

21) 조법종,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pp.37-49.

22) 실학자들 중 동이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釋史) 제1권에서

그렇다면 색동옷을 입은 아이 양 옆에는 이 아이를 비호하듯 바람에 날개를 펼 력이듯 날개 짓을 하는 봉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봉황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 응조(瑞應鳥)로 상상속의 조형(鳥形)인 봉황(鳳凰)은 수컷을 봉(鳳), 암컷을 황(凰) 라여 봉황이라 하고, 좌우 한 쌍으로 묘사되는데, 그 생김새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산해경』(山海經) 남산경(南山經) 편에서는 봉황은 닭처럼 생겼고 화려한 오색 깃털을 지녔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봉황의 몸의 각 부분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슴은 인(仁)을, 날개는 의(義)를, 등은 예(禮)를, 머리는 덕(德)을, 배는 신(信)을 나타낸다고 한다.²³⁾ 중요한 것은 날개로, 그 날개가 크면 클수록 그 기능이 훌륭하고 위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⁴⁾ 또한 『회남자』에는 “지극한 덕이 펼쳐지면 봉황이 날아든다. 이때는 천둥이 울리거나 번개가 치지 않고 거센 비바람도 불지 않으며, 냇물이나 계곡물이 넘치지 않고 초목도 흔들리지 않는다.”²⁵⁾라며 덕있는 군주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봉황의 모습은 “봉황은 만길 높이로 날아오르고 사해 밖으로 비상하며,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인 소포(疏圃)를 지나 지주(砥柱)의 여울물을 마시고, 몽사(蒙汜)의 물가를 돌아 기주의 변경을 배회하며, 도광(都廣)을 가로질러 억절(抑節)에서 인물을 보고, 약수에 날개를 축이고 풍혈에서 잠들게 된다.”²⁶⁾고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태양의 현현으로, 불, 양과 관련되며, 길조와 인애, 태평성대, 혹은 천자를 상징하는 봉황은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족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봉황, 신라 봉황문 등 벽화, 도자기, 장신구, 복식 등에 등장하게 되는데, 7·8세기경에는 불교의 흥성과 더불어 매우 다채로운 무늬 수막새 기와가 만들어 지고, 좌우대칭으로 양각의 봉황이 만들어진다.²⁷⁾ 그 후 봉황은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도자기, 복식, 건축, 회화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국가상징문장(紋章)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봉황은 동이족의 새승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상고시대, 중국의 동방연해 지역에서 활동한 동이족은 세토템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새를 토템으로 숭배해서 鳥夷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동이는 의복이나 장식에서도 새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²⁸⁾. 이는

동이총기(東夷總記)를 기록하여 동이관련 중국기록을 망라하여 정리했다. 동이족에 대한 의식은 조선시대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사려된다.

23) 예태일·전발평 편저, 서경호·김영지 역, 『산해경』, 안티쿠스, 2008, pp.23-24.

24) 장자, 『莊子』, 송지영 역, 신원문화사, 2006, p.9.

25) 유안, 『회남자』, 이석명 역, 소명, 2010, p.362.

26) 위의 책, p.362.

27) 이명숙, 「한국 공예품에 표현된 봉황문양 연구」『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12, p.178.

고구려의 주몽, 박혁거세 등 삼국의 시조설화에는 난생설화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주몽신화는 궁시(弓矢)설화를 지니고 있어 봉새신화와의 관련성을 뚜렷이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김주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표식”²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신사상을 반영하는 鳳凰紋은 고구려고분벽화

의 천장석, 천정고임부, 현실벽면 등에 현조와 주작, 仙人을 태우는 瑞鳥로 표현된다.

그런데 봉황은 현조(玄鳥)인 까마귀와 밀접한 친연성을 지니는데,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는 주작으로 변형된다. 주작은 공작(孔雀)이라고도 불리고, 봉황(鳳凰)이나 현조(玄鳥)라고도 표현된다. 봉황은 현조(玄鳥) 토템에서 변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토템으로 닭 또는 기러기나 봉새가 변화한 것이라는 설과 단일 형태의 토템으로 닭이나 봉새가 변화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지만 봉새는 모든 새들을 통칭으로 주작도 鳳凰의 일종이라고 설명한다³⁰⁾.



그림 8 통일신라의 鳳凰文 수막새, 芬皇寺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일반적으로 봉황은 대부분 암수 한쌍이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며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아일보》의 삽화 속의 봉황은 가운데 서있는 어린 아이가 양옆에 서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 통일신라의 鳳凰文 수막새의 봉황과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탄생한 《동아일보》의 1주년을 한국민족을 상징하는 동이족과 동이족과 관련있는 봉황, 그리고 한국의 상징인 무궁화 등을 배치하여 한국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나타내고, 상고의 역사를 고구려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고구려벽화풍의 삽화 및 봉황의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기념삽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삽화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20년 4월 1일 창간호에서부터 단군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밝힌 《동아일보》의 단군관련기사이다. 《동아일보》의 단군관련기사와 《동아일보》의 기념삽화와의 관련성을 고찰해보도록 하자.

28) 김백현, 「神仙사상의 源源으로 본 東夷族의 봉황문화」 『中國學報』, 2003, p.662.

29) 김주미, 「鳳凰紋과 韓民族의 天神思想:高句麗 古墳 壁畫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2004, p.137.

30) 김주미, 「三足鳥·朱雀·鳳凰 圖像의 성립과 친연성 고찰」 『역사민속학』31, 2009, pp. 265-269.

5. 『동아일보』와 단군관련기사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호 3면, 『동아일보』 기자, 김동명에 의한 삽화가 게재되었다. 허리에 '동아일보'라는 띠를 두른 전라의 어린아이가 단군유지(檀君遺趾)라는 책을 손으로 가리키는 만평이다. 민족지로 출간한 동아일보의 지향점이 단군유지(檀君遺趾)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갓 태어난 동아일보'가 '언론' 이란 바구니에 '단군(檀君) 선조(先祖)의 유훈(遺訓)'을 담아 조선의 민중들에게 전함을 표현하였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를 '단군'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삽화로 이는 동아일보가 벌인 첫 사업 단군(檀君) 영정(影幀) 현상 모집이었다는 것에서도 단군을 통한 민족적 정통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동아일보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탄으로 이어지는 국권상실의 수난에서 단군은 대종교운동으로 본격화되었다. 김교현, 박은식 등에 의한 『단조사고』(檀祖事考)가 대종교협제회에서 순한문체로 간행된 것은 1911년의 일이다. 신채호와 같은 민족역사학자들의 단군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동시에 일어나 오랜 기간 단일 민족의 상징으로 존재해왔던 단군이 민족적 동질성과 통합성을 꾀하는 민족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단군은 몽고침략군에 맞서 처절한 항쟁을 지속하기 위한 민족적 자긍심과 동질성의 부각이 절실히 요구되던 13세기, 처음으로 문헌으로 등장한다.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혼존 최고의 문헌인 일연(一然, 1206~1289)

의 『삼국유사(三國遺事)』, 이승휴(李承休, 1224~1300)의 『제왕운기(帝王韻紀)』(1287)는 단군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하늘님(환인)의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단군은 고려 말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혼란한 시대에 민족을 지켜주는 위난극복이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윤이흠은 "역사적으로 민족의식이 요청될 때면 단군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곤 하였다. 이는 모화사상과 민족자존으로 갈등하던 조선조, 그리고 구한말 등 그 해석은 곧 우리 민족과 그 문화의 정체감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역사적 형태"였다



그림 9. 김동명,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자 창간호 3면 만평

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민족적 위기상황에 단군신화가 재해석되는 것은 혈연공동체의식이 강한 한국인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할 때 그 시대의식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라는 민족의 기원에 관한 질문”으로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면서 표출되었음을 지적한다³¹⁾.

신채호와 박은식 등과 같은 초기 역사학자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서술하였는데, 특히 신채호는 민족존망의 위기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을 위한 사상적 기초로서 민족주의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그의 노력은 한국상고사의 재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을 위한 사상적 기초로 한국민족은 ‘단군 아래 이천만 자손이 대대로 살아 온 공동체’라는 것을 자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민족적 구심점으로서의 단군을 역사화시킴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역사적, 민족적 역량을 민족주의 운동으로 역동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이 자생력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기본요건으로 희망, 애국심, 역사³²⁾ 이 세 가지를 꼽은 신채호는 “歴史가 有하면 其國이 必興하니라. 國이 有하면 歷史가 必有”³³⁾하다며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렇게 근대기, 단군 고조선의 실재성을 증명함으로서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부각시키고, 국가창생신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창간호부터 단군유지(檀君遺趾)를 받들겠다고 천명한 《동아일보》도 1920년 4월 11일부터 6월 6일까지 단군현상모집 사고(社告)를 다음과 같이 12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종조(宗祖)이시오. 우리 근역(槿域)에 건국하신 제일인(第一人)이시오. 가장 신성하신 대위인이시라. 건국하신 사업이 역연하시고 경국(經國)하신 역사가 찬연하시고 신성하신 혼령이 염연하시사 금일 오등(吾等) 자손에 전(傳)케 되시고 승(乘)케 되신지라. 우리는 양모(仰慕)와 존승(尊崇)을 난금(難禁)하는 중심으로써 숭엄하신 단군 존상(尊像)을 구하여 독자(讀子)와 공(共)히 배(拜)하려고 자(茲)에 본사는 현상(懸賞)하여 감히 존상(尊像)을 모집하오니 강호형제(江湖兄弟)는 응모하시오.³⁴⁾”

단군영정공모에는 56건의 응모가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 9월 말로 연기하여 1920년 음력10월 3일 개천절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9월 하순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여 중단하게 된다³⁵⁾. 《동아일보》는 단군 영정 응모

31) 윤이흠 외, 『단군 전자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6-8.

32) 신채호, 「大韓의 希望」 「大韓協會報4月」, 1908, 『丹齋申采浩全集』下, p.63.

33) 신채호, 「歷史와 愛國心의 關係」 『大韓協會報』 第3号, 1908, (『丹齋申采浩全集』下), p.72.

34)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자 창간호 3면.



그림 10 1922년 11월 21일자 3면에 한 단군 영정이 게재

기간 중인 1920년 6월 22일자 1면 사설에 “조선인의 정신은 조선혼(朝鮮魂)으로 출(出)함이며 조선인의 생활은 조선식(朝鮮式)으로 영(營)함이니 이 조선식과 조선혼은 그 역사가 장차원(長且遠)하니라. 성조(聖祖) 단군(檀君)께서 그 식(式)과 혼(魂)을 창조하신 후 지금 4천여 세(歲)에 반도의 지축(地軸)에 그 혼이 깊이 인각(印刻)되고 반도의 지면(地面)에 그 식(式)이 널리 충만하여 이에 그 혼으로 조선인을 생(生)하며, 그 식(式)으로 조선인을 양(養)하나니 그 혼으로 생(生)한 인(人)이 어찌 그 혼을 망(忘)하며 그 식(式)으로 양(養)한 인(人)이 어찌 그 식(式)을 탈(脫)하리오.”라며 조선민족의 정통성이 단군에서 있음을 천명하며, 단군의 정신의 보존을 강조했다.³⁶⁾

이러한 동아일보의 논조는 그 후로도 한동안 지속되어 1922년 11월 21일자 신문에도 단군영정과 더불어 ‘금일(今日), 개천성절(開天聖節)’라는 제목으로 “금이십일일은 음력으로 십월 초삼일이라 이날은 우리 조선 민족의 선조가 되시는 단군께옵서 태백산 단목하에 탄강하신 날”이라는 것과 “대종교 남도 본사에서 개천경배식(開天敬拜式)을 거행”한다는 내용을 시가를 실으면서 최초로 단군영정을 실었다. 이 영정은 해방 후에도 단군의 공식영정으로 사용하였다.

《동아일보》의 단군에 대한 기사는 1925년 8월 1일 동아일보의 촉탁기자가 된 육당 최남선의 기사로 단군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전까지도 약 65차례에 걸쳐 보도되었다. 1925년 11월 18일 1면 사설 ‘개천절’로 시작된 최남선의 단군관련기사는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이었던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단군은 일연선사(一然禪師)가 지은 삼국유사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그 후 과장, 확대된 전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반발하여 쓴 1926년 2월 11일, 12일자 ‘檀君否認의 妄 - 文教의 朝鮮의 狂論’을 시작으로 1926년 3월 3일부터 7월 25일자까지 77회를 거쳐 ‘단군론(檀君論),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문화연원연구’를 연재한다. 거기에서 최

35) 단군 영정에 취하여, 《동아일보》, 1920년 6월 6일자 3면. 또한, 《동아일보》 1935년 4월 6일자 석간 3면에는 “단군께서는 우리 거래의 삶과 영의 원천이시다. 우리의 간곡한 정성은 그 거룩하신 존상이나마 길이 보전코자 창간 후 첫 사업으로 그 존상을 공모해 보았으나 아득한 반만년전의 일이오, 첫째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에 응모한 인원이 겨우 56건으로 그 중에 뽑을만한 것이 없어서 결국은 약속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게 되고 말았다.”는 창간 15주년 기념 특집기사가 실렸다.

36) 「자정신(自精神)을 환(喚)하고 구사상(舊思想)을 논(論)」 《동아일보》, 1920.6.22. 1면 사설

남선은 “朝鮮이 東亞最古의 一國으로 檀君이 그 人文的始源이라 함은 朝鮮人이 오래 前부터 傳信하는 바이다. 遺文이 簡略하야 그 詳을 얻기 어려우나 朝鮮民族의 淵源과 文物의 來歷을 오직 여기에서 徵考할 밖에 없을진대 獨一한 遺珠이기에 더욱 그 보배로움을 불지니”라며 국조로서의 단군의 위상을 칭송하고 전승되어 오는 기록이 풍부하지 못함이 단군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20세기 초 단군에 대한 연구가 재기되었는데, 조선중후기, 유교문명의 전래자로서 기자를 더욱 중시하여 단군에서 계승되는 왕조가 중국인 기자(箕子)를 거쳐 다시 한인(漢人) 위만(衛滿)에 의한 위만조선(衛滿朝鮮), 신라로 연결되는 삼한 정통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역사관은 대한제국에도 이어져 신채호는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東國을 開倉하신 始祖가 檀君이 아닌가 … 檀君이 創業垂統한 지 二千餘年에, 其 王朝가兩派로 分立하니, 其 相距를 計하면 三千年에 已近하였으나, 檀君이 既是 高句麗王朝의 血統直祖인즉, 高句麗 遺文故史에 檀君聖蹟이 詳載하였을지며 … 我 國史家의 蔑識이여, 我國의 文獻의 殘缺함이 雖甚하니, 檀君 傳統의 傳次한 夫餘王朝가 昭在하니 … 夫餘는 堂堂히 檀君의 正統을 授한 者耳, 夫餘는 一字一句에 說及도 無하고, 箕子만 謳歌하니, 鳴呼라, 其 蔑識이 어찌 此에 至하뇨³⁷⁾

즉, 이를 부여, 고구려 중심으로 계승된다고 주장했다. 이만열은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삼국유사』, 『동국사략』, 『동국통감』을 형성된 한국고대사인식체계는 단군-기자-위만[四郡二府]이라는 기자와 한의 계승을 중시한 역사계승의식은 대한제국시기에 강력히 대두하였고, 이는 더불어 일본의 일선동조론의 등장이 신채호가 단군 시조론과 부여 고구려 정통론을 제기한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한다³⁸⁾. 그러면서 “단재는 단군-부여-고구려로 계승되는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그 의도는 “고구려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대주의를 타파하려고 의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가 처하고 있던 한말, 일제하의 식민지적 상황을 철폐해야 하겠다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³⁹⁾를 위함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신채호를 위시한 역사학자들은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민족의 역사가 광활한 만주를 지배했던 고구려로 계승되

37) 신채호, 『讀史新論』, 1908, 《大韓每日申報》연재, 『丹齋中采浩全集』上(pp.478-482).

38) 이만열, 「丹齋中采浩의 古代史 認識」 『丹齋中采浩 研究論集』, 1994,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69.

39) 위의 논문, pp. 116-117.

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역사관이 우파적 민족주의의 기관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동아일보》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이는 신문의 방향을 주관하는 주필로 오랫동안 활동한 장덕수가 여운형·신채호 등과 같이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의 일원으로 비록 또 다른 주필자, 송산 김명식(松山 金明植)과 김윤식사회장문제로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민족주의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아일보》의 단군관련기사 및 한국의 신화적 이미지를 재현한 삽화의 계재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1920년 4월 1일, 사이토정권의 문화정치로의 전환으로 인해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시대일보》가 창간되었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이어지는 일제의 언로(言路)탄압으로 그야말로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는 물론, 신체의 자유까지도 제한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한국인에 의한 민간일간지의 출현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다. 1920년에 탄생한 3대 일간지 중에서도 압도적인 판매부수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동아일보》는 종래의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인쇄물과는 근대적 이미지를 차용한 광고의 증대 및 신문삽화, 아르누보풍의 신문장식에서 종래의 신문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 제호를 장식하는 창간기념 및 신년기념삽화는 종래의 인쇄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신화적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사화처럼 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동아일보》 창간호 제호삽화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강서대묘에 묘사된 비천의 이미지를 신문발간축하의 의미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창간호만이 아니라 1주년과 2주년 창간기념호, 그리고 신년기념호마다 전통적 이미지를 현재적 혹은 역사화풍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고구려고분벽화를 비롯한 고대유물, 유적은 역사를 증명하는 실증적 자료로 신화적 이미지의 계재는 1면 삽화만이 아니라, 단군영정을 계재함으로서 신화 속에만 존재했던 민족시조로서의 신화적 이미지의 단군을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 같은 《동아일보》의 시도는 당시, 일제와 민족역사학자들의 조선사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광개토왕비 발굴과 일제의 대륙진출, 그리고 조선의 효과적 지배를 위한 총독부의 조선풍속, 문화, 유적조사를 통해 고구려에 대한 연구, 조사

가 총독부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교과서를 비롯한 조선사출간을 통한 일제의 식민지사관 주입에 맞서 신채호와 같은 역사학자는 단군-기자-위만(四郡二府)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식한 종래의 한국고대사인식체계를 단군-부여-고구려로 계승되는 한국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여 중국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대주위를 타파하려 하였다.

20세기 초, 이러한 민족주의 사관에 근거한 역사관은 서적, 잡지, 신문 등 근대 인쇄매체를 통해 대중화를 꾀하였다. 특히,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근대기, 《동아일보》는 글로 된 기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삽화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신화,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인식할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시각미술에 공헌한 바가 매우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는 후일, 이광수의 글로 《동아일보》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한국근대사에서 《동아일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3.1운동이후 높아진 민족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 민족독립을 열망하는 민의(民意)를 반영하여 유구하고, 장대한 한국사를 시각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화의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다.

주제어: 고희동, 동아일보, 신채호, 단군, 고구려벽화, 봉황, 비천, 신문삽화, 사이토 마코토

원고접수일: 2012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7일

참고문헌

- 민영환, 이민수 역, 「민충정공 유고」, 一潮閣, 2000.
- 金谷栄雄編, 「黎明之朝鮮」, 東亜義會, 1924.
- 原敬全集刊行會編, 「原敬全集」下, 東京, 1929.
- 興亞文化協會編, 「歷代總理大臣施政方針」, 興亞文化協會, 1939.
- 신채호, 「丹齋申采浩全集」下, 螢雪出版社, 1987.
- 「莊子」, 송지영 역, 신원문화사, 2006.
- 유안, 이석명역, 「회남자」, 소명, 2010.
- 윤이흠 외저, 「단군 전자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Abstract>

1920年代, 《東亜日報》挿絵に表現された韓国古代神話

Chae, Yuggyung(Seoul National University)

1920年4月1日、朝鮮総督府総督として就任した斎藤真は寺内の武断統治から文化統治への転換を宣言した。それは3. 1独立運動による政策変換を余儀無くなれたことと、日本において政党政治の幕をあけた日本の首相、原敬の施政の方針によるものである。文化政治への変換により、それまで抑圧されていた朝鮮の言論はある程度許可されることとなり、1920年、朝鮮の地において《東亜日報》をはじめ、《朝鮮日報》《時事新聞》が創刊された。3大日刊紙のなかでも販売部数において圧倒的な影響力をもっていた《東亜日報》は広告の数、挿絵、アールヌーボー風の装飾などにおいて従来の新聞とは全く異なるものであった。

特に、《東亜日報》の創刊号一面において朝鮮の神話のイメージを使った挿絵を掲載する。それは従来の印刷物においてはみかけないものである。それは創刊号だけではなく、新年記念挿絵、創刊一週年記念挿絵など伝統的なイメージを現在風、または歴史画風に再構成して表現した。

高句麗古墳壁画をはじめ、古代遺物、遺跡は歴史を明かす実証的資料である。《東亜日報》は朝鮮の上古代の神話的イメージを新聞一面に掲載するだけではなく、朝鮮民族の始祖である、檀君影幀を掲載することで神話のなかにだけ存在していた檀君を歴史的人物として認識させることとなった。このような《東亜日報》の試みは朝鮮の民族歴史学者たちの朝鮮史研究と脈を同じくするもので、申采浩は檀君-箕子-衛氏朝鮮(四郡二府)へと継承されることと認識していた従来の古代朝鮮の歴史認識体型を檀君-夫餘-高句麗へ継承されという新しい歴史体型を提示することで、中国に対する文化的、政治的事大主義を打破しようとした。

20世紀初め、このように民族主義史観に基づいた歴史観は書籍、雑誌、新聞などの印刷メディアを通じて大衆化された。特に視覚的なイメージの重要性が目立つ近代期、《東亜日報》は文字だけの記事に限らず、挿絵という資格イメージを通して

じて表現することで想像のなかにだけ存在していた神話、古代の歴史を生き生きとして歴史として認識させたという点において視覚美術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

後に李光洙の記事で『東亜日報』の不買運動がおきるなど韓国近代史において『東亜日報』に対する多様な評価はあるだろうが、3. 1独立運動以後、高まっていた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韓国人としての自意識、民族独立を願う民意を反映して悠久で、壮大な韓国の歴史を視覚的に表明したという点においては新しい歴史画の地平を開いたことができる。

key words: Go-hidong, the Dong-A Daily News, Sin chea ho, Dangun, the Mural Painting of the Kokuryo Ancient Tombs, phoenix, a heavenly maid, illustration of newspaper, Saito makoto